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6월 셋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6월 셋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6월 셋째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6월의 따뜻한 햇살과 함께 새벽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6월 셋째주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5)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아름다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절망할 때마다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해주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6월 셋째주 2: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3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이름을 찾아 나오는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밤사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앞길이 막막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소서. 지친 마음에 위로를, 약한 몸에 건강을, 흔들리는 믿음에 확신을 허락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과,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6월 셋째주 3: 은혜의 통로가 되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8)

사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싱그러운 새벽공기를 마시며, 주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소서. 구원의 은혜, 가정의 은혜,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해주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소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소서.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특별히 새신자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소서. 정치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돌봐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6월 셋째주 4: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첩경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25: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와 경배드립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만으로는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렵고,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옵소서. 가정생활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소서.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도 이루어져 가게 해주소서.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녁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하루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6월 셋째주 5: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시간에 주님을 찾아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사이 평안한 잠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소서. 숨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소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는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주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소서.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해주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주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비판적인 시선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신앙환경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환경을 잘 활용하여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소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새벽예배 대표기도문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예배 정보는 [새벽예배 안내]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